



# PVC 대체 OPS라벨 공급하는 환경기업

## 필름제조서 가공까지 가능한 종합라벨제조 전문메이커

### 개량산업으로 시작

세계적으로 환경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짐에 따라 환경친화적인 제품들이 눈에 띄게 늘어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현상일런지도 모르겠다.

포장업계도 마찬가지로 여러 환경친화제품들이 개발되어 시판에까지 이르고 있으나 정부 규제시행의 지지부진과 사용자들의 인식부족으로 사실상 큰 변화를 보이고 있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지금까지 플라스틱용기의 라벨로는 PVC수축필름과 OPP 필름이 대부분 사용되어 왔다. 그러나 소각시 다이옥신과 같은 인체유해 물질이 배출되고 이것이 환경을 저해한다는 이유로 PVC필름 사용에 대한 논란이 계속적으로 제기

되어 옴에 따라 이에 따른 대체재 개발이 활발해지고 있다.

PS필름을 연신한 형태인 OPS필름이 라벨의 새로운 소재로 떠올라 일부업체에서 적용시키고 있는데 그간 일본이나 프랑스로부터 수입을 해오고 있어 많은 외화를 낭비해오던 품목이다.

지난 95년부터 약 2년에 걸쳐 OPS필름 국내개발에 착수하여 지난해말 국산화에 성공한 중소기업인 주식회사 유주왕은 기존 PVC라벨 제조 메이커로 이미 알려진 기업이다.

기존 PVC라벨 제조메이커로서 새로운 소재인 OPS필름을 개발하게 된 유주왕의 박건규사장은 "10억원가량의 개발비를 투입하고 70억 원을 투자하여 OPS생산설비를 갖춘 것은 미래 수요에 대한 확신때문이었습니다. 더욱이 지난



▶ 새로 건축된 깨끗한 모습의 안산 유주왕 전경.

96년 PS소재인 요쿠르트병 라벨로 OPS필름 사용이 의무화되었고 앞으로 다른 용기로 확대될 것이 예상됩니다"라고 시장에 대해 단언했다.



### 국내 라벨 평판인쇄 처음 소개

유주왕의 모체인 개량산업은 박 사장의 선친인 박병준 회장이 69년 설립 하여 우유병마개, 막걸리병 마개로 전국시장을 독점한 업체로 점차 우유병이 종이팩으로, 막걸리병 용기가 전환됨에 따라 수축필름생산으로 사업을 변경하게 됐다.

그후 89년 당진군 합덕공장에서 PVC수축 필름을 생산하면서 유주왕산업으로 새롭게 태어났다. 90년 1월 개량산업과 함께 안산으로 이전하고 91년 주식회사 유주왕으로 법인전환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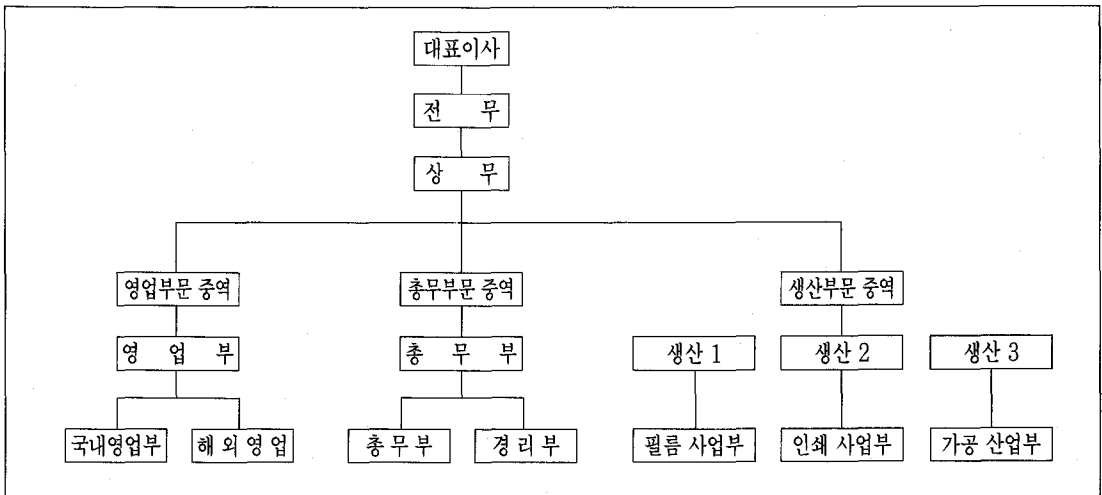
유주왕이 PVC수축필름으로 업종을 전환하

게된 계기는 당시 튜브형태로 공급되던 PVC라벨이 일본에서부터 용기 다양화 바람이 일어 평판형태로 바뀜에 따라 평판인쇄법이 요구되어 유주왕이 국내에 처음 평판인쇄를 소개하면서 이 사업에 참여했다.

유주왕 설립과 함께 참여하여 박 사장의 실질적인 경영의 동반자 역할을 하고 있는 손 전무는 앞으로 필름사업 부문을 육성 강화할 뜻을 밝혔다.

"올해 수출은 매출의 30%정도로 보고 있으며 내년에는 OPS필름이 판매에 활기를 띄어 50%이상의 수출이 기대됩니다. 지금까지 주로 미국, 구라파, 동남아시아 등이 주 수출국이었는데 그동안은 국내 PVC수축필름은 질이 그다지 양호하지 못해 수출이 부진했으나 OPS필름의 일본시장이 점차 늘고있어 일본으로의 수출도 가능하리라 기대하고 있습니다"라는 손 전

(그림 1) 조직도





▲ 유주왕은 각종 플라스틱 용기의 라벨을 생산하고 있다.

무는 PVC는 소각시 염소가스 발생으로 환경에 저해되는 단점이 있고 리사이클 측면에서 볼때도 OPS가 적합하다고 강조했다.

### OPS 라벨 PET병에도 적용가능성 커

유주왕은 이미 한국야쿠르트와 서울우유에 OPS라벨을 공급하고 있는데 요구르트 포장용기와 같은 재질인 OPS는 용기분리 수거시 번거로움을 피할 수 있고 이외에 국내 PET병 재활용 시스템이 비중분리식이라 PET병에도 적용이 확실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최근 환경부가 PET병의 라벨재질을 폴리스티렌으로 변경할 계획을 발표했고 곧 구체적인 계획이 나오면 연차적으로 PS필름으로 전환될 것이라는 박 사장은 이 규제가 구체적으로 시

행되면 압출기 한대를 증설하여 수요에 대응할 계획이라고 피력했다.

국내에서 수축필름 생산설비와 가공설비를 동시에 갖춘 회사는 유주왕뿐으로 이로 인해 중간과정상의 원가절감을 피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최종사용자들이 요구하는 것을 필름생산공정과 가공공정에서 바로 처리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국내 중소기업에서 나타나는 비슷한 현상처럼 기술개발 부서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닌 사장을 비롯하여 각 부서 담당자들이 모두 개발을 동시에 수행하고 있는데 그간 용기의 목부분을 매끄럽게 포장할 수 있는 고수축필름을 자체 개발하였고 은박지질감을 내는 자양강장제의 포장용필름, 금속질감의 건전지 포장용 필름을 개발하여 특허출원 중에 있기도 하다.

### 가족 같은 분위기 강조

이러한 결과는 기술개발을 중시하고 목표를 세우면 끝까지 밀고 나가는 경영스타일을 보이고 있는 박사장은 직원들에게 가족 같은 분위기를 만들자고 늘 강조하고 있다.

“집에 있는 시간보다 회사에 있는 시간이 더 많으므로 회사가 가정과 같은 모습을 갖출때만이 좋은 일의 결과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선친께서 하시던 사업에 일찍부터 참여하여 부담감도 크지만 늘 뒤에서 도와주시는 선친과 경험많은 주위의 충고를 겸허하게 받아 들이며 경영에 임하려 노력하고 있습니다”라고 피력하는 박 사장은 아직은 젊은 나이이다보니 업계에서 공격적인 경영을 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들지만 오히려 그것

[표 1] 보유시설 현황

시설명	수량	비고
압출 LINE	1	PVC, PS 수축필름 생산용
PRINTING M/C	3	8도 자동 COLOR CONTROL M/C
TENTER M/C	2	수축필름 생산용
DRY-LAMINATING M/C	1	필름 합지용
SLITTING M/C	5	
SEALLING M/C	5	
REWINDING M/C	3	
CUTTING M/C	16	

수입품보다 고품질이면서 저렴한 OPS필름을 공급하여 내년에는 2백억원의 매출을 올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탄탄하고 안정적인 대기업들도 무너지는 전방적인 불경기인 탓으로 산업계가 전체적인 침체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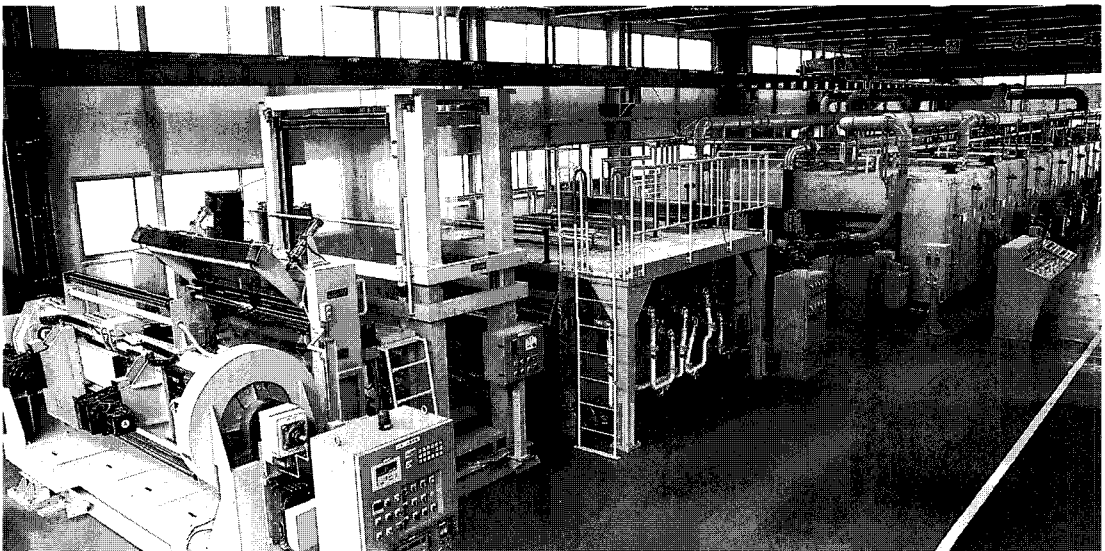
을 장점으로 살리고 있는 케이스다.

또한 매년 세계 각종 포장전시회를 참관하고 발빠른 정보를 수집하는 박 사장은 이번 OPS 필름 제품의 가능성도 그동안 꾸준한 정보수집을 통해 결론내린 것이라고 털어 놓았다.

유주왕은 설립초 18억매출에서 올해 120억의 매출을 기대하고 있는만큼 빠른성장을 보이고 있는 업체다. 또한 올해와 내년을 기점으로

를 겪고 있어 우울한 시기다. 이러한 때에 중소기업이지만 가능성있는 유주왕을 방문하고 잠시 희망을 가져보며 정부는 일어서려는 그들의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행정을 펼 것이 아니라 일관되고 바람직한 방향으로 오히려 그들을 이끌어 나가 주어야 할 것이 아닌가하는 의문을 가져 보았다. ☐

이선하 기자



▲ 유주왕은 최근 IN-LINE 방식의 연신설비를 갖추고 생산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